

“심장 · 동맥질환, 세계 사망원인의 1/4”

1992세계 보건의 날 메세지

히로시 나카지마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다. 그도 당연한 것이 이들 심장과 동맥의 질환은 세계 사망원인이 1/4을 차지하며, 매년 약 1,2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간다.


세계적으로 이들 질환은 다른 어떤 단일 질환보다 많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며 매년 수백만명을 불구로 만든다. 더욱 나쁜 것은, 그 희생자의 다수가 65세 이하라는 점이다. 현대의 증가된 평균수명에 비추어 이들 사망은 조기사망이며 가족들에게는 비탄을, 많은 국가에게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심혈관질환은 한때 공업화된 국가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되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근대화되어 그들 국가의 전염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이 생각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다행히, 심혈관질환은, 아직은 사망원인 1위지만 몇몇 선진국, 특히 서부유럽 국가들, 북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등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식사조절과 운동—특히 모든 연령에서 가능한 걷기—그리고 금연을 통해 예방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게다가, 심혈관질환의 예방에는 부수적인 이득이 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생활양식은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심장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1992년 세계보건의 날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확산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것은 또한 각국 정부에게는 보건 담당자에게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고 의료인들에게는 심장병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0년과 그 이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심장의 건강’이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